



보건복지계열 전공 대학생의 빈곤과 일에 대한 태도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toward poverty and work i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the Health and Welfare Department

강민채, 김희경, 노윤희, 도종준, 민채리, 박연주, 박예슬, 송우진, 이정민, 이승혜, 최서희 지도교수 : 송연이

연구의 필요성

- WHO 사회결정요인위원회의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접근 전략으로 일상생활의 조건을 향상시키고 권력, 자원, 자원의 불균형한 분포 문제를 해소할 것 등을 제안함.
- 신영전 등(2011)은 건강불평등이 사회적 맥락에서 일어남을 제시. 즉, 빈곤한 사람들이 흡연, 음주 등과 같은 건강에 위해한 행동을 더 많이 함.
- 빈곤의 발생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태도는 사회불평등에 관한 적극적 차원의 개입을 가져올 수 있음.
- 일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하여 부여하는 의미와 중요성, 일로부터 얻는 내외적인 보상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중재를 할 때 직업적인 어려움 정도에 따라 우호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음.
- 따라서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빈곤에 대한 태도와 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교육 필요성 제안의 자료로 활용함.

연구의 목적

- 보건복지계열 전공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빈곤에 대한 태도와 일에 대한 태도를 파악
- 보건복지계열 전공 대학생의 빈곤학습경험에 따른 빈곤에 대한 태도와 일에 대한 태도를 파악
- 보건복지계열 전공 대학생의 빈곤에 대한 태도와 일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를 파악
- 보건복지계열 전공 대학생의 일에 대한 태도가 빈곤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연구의 방법

- 연구 설계 : 서술적 조사 연구
- 연구 대상자 : C대 간호학과, D대 사회복지학과 3-4학년 학생 중 연구에 동의한 156명
- 연구도구 :
 - 1) 빈곤에 대한 태도
 - Anthoner의 ATP(attitudes toward poverty and poor people)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이민영이 재구성한 척도 사용, 점수가 높을수록 빈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짐
 - 빈곤문제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지, 빈곤상황에 대해 낙관적/비관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 빈곤 해결에 대해 적극적/소극적 행동경향이 있는지 평가
 - 개발 당시 신뢰도 : Cronbach α =.75 본 연구의 신뢰도 : Cronbach α =.68
 - 2) 일에 대한 태도
 - 김경동이 개발한 척도 사용, 점수가 높을수록 일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
 - 일을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하는가, 일에 헌신물입 하는가, 일로 사회적 만족을 얻는가, 일을 사회적 지위획득의 도구로 적용하는가를 평가
 - 개발 당시 신뢰도 : Cronbach α =.76 본 연구의 신뢰도 : Cronbach α =.71
- 자료 분석 방법 : T-test, 분산분석, Pearson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빈곤에 대한 태도

구분	N(%)	빈곤문제		빈곤상황		사회적 노력	
		M±SD	t/F	M±SD	t/F	M±SD	t/F
연령	20~22	59(37.8)	29.76±4.41	41.00±6.14	21.64±2.49		
	23~25	83(53.2)	30.21±3.82	2.511	41.67±4.82	2.548	21.77±2.79
	>26	14(9.0)	29.21±5.91	36.14±7.56	20.35±2.70		0.501
성별	남	41(26.3)	30.36±5.24	0.623	42.00±6.14	1.335	21.95±2.44
	여	115(73.7)	29.80±3.85	40.53±5.65	21.47±2.76		1.044
전공	간호학	92(59.0)	29.65±4.50	-1.098	40.57±6.17	-0.923	21.44±2.77
	사회복지학	64(41.0)	30.39±3.85	41.42±5.22	21.81±2.56		-0.849
종교	불교	13(8.3)	29.53±5.20	40.84±5.88	22.61±3.45		
	기독교	44(28.2)	30.36±4.66	0.576	41.43±5.39	0.240	20.97±2.28
	천주교	15(9.6)	30.40±3.46	42.86±4.91	23.33±2.71		1.820
	무교	84(53.9)	29.72±4.04	40.32±6.12	21.45±2.62		
	부모가정	135(86.5)	29.99±4.03	40.74±5.79	21.62±2.69		
가족형태	편부모가정	14(9.0)	29.35±5.27	2.994	41.21±5.46	0.084	21.71±2.36
	기타	7(4.5)	30.42±6.52	43.71±6.55	20.85±3.43		0.241
	상	7(4.5)	29.71±3.03	37.00±6.45	22.57±1.90		
경제수준	중	135(86.5)	30.00±4.16	2.013	41.11±5.72	0.125	21.55±2.74
	하	14(9.0)	29.57±5.69	41.07±5.92	21.50±2.43		0.811
	유	147(94.2)	30.14±4.02	40.93±5.84	21.56±2.70		
아르바이트	유	9(5.8)	26.88±6.58	1.466	40.77±5.35	0.083	22.11±2.47
	무	147(94.2)	30.14±4.02	40.93±5.84	21.56±2.70		-0.640
봉사시간	0~59	62(39.7)	29.58±4.59	40.77±6.30	21.93±2.87		
	60~99	46(29.4)	30.08±3.63	1.024	40.65±5.54	0.444	20.82±2.55
	>100	48(30.9)	30.31±4.38	41.37±5.43	21.89±2.45		0.769
간접 빈곤경험	유	127(81.4)	30.22±3.97	1.429	41.21±5.72	1.264	21.57±2.75
	무	29(18.6)	28.75±5.20	39.65±6.04	21.69±2.42		-0.224
직접 빈곤경험	유	56(35.9)	30.00±4.63	0.095	41.19±6.39	0.421	22.32±2.57
	무	100(64.1)	29.93±4.04	40.77±5.46	21.19±2.67		2.596
합계	156(10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에 대한 태도

구분	N(%)	다양한 활동		심리적 헌신물입		사회적 표출성		지위획득의 도구성	
		M±SD	t/F	M±SD	t/F	M±SD	t/F	M±SD	t/F
연령	20~22	59(37.8)	18.33±2.46	16.30±3.06	17.45±2.80	11.61±3.08			
	23~25	83(53.2)	19.36±2.11	1.959	17.49±2.32	2.639	15.34±0.03	1.397	11.77±2.68
	>26	14(9.0)	19.14±3.57	17.35±3.93	14.78±0.43	12.35±3.41			
성별	남	41(26.3)	19.43±2.56	1.436	17.43±2.57	1.137	16.02±0.33	-0.060	11.70±3.28
	여	115(73.7)	18.78±2.38	16.88±2.90	16.12±16.46	11.78±2.76		-0.131	
전공	간호학	92(59.0)	18.77±2.46	-1.134	17.07±2.82	0.232	17.00±18.30	1.129	11.81±2.91
	사회복지학	64(41.0)	19.21±2.39	16.96±2.84	14.79±0.27	11.68±2.89		0.277	
종교	불교	13(8.3)	18.92±2.21	17.61±2.10	15.38±0.70	11.30±2.59			
	기독교	44(28.2)	18.93±2.52	0.389	16.70±2.85	1.058	14.38±0.05	0.492	11.75±3.08
	천주교	15(9.6)	18.06±2.63	17.00±2.50	15.46±0.97	12.80±2.54		0.413	
	무교	84(53.9)	18.33±2.46	17.11±2.97	17.21±19.13	11.65±2.90			
	부모가정	135(86.5)	19.36±2.11	16.97±2.79	16.07±15.23	11.60±2.87			
가족형태	편부모가정	14(9.0)	19.14±3.57	0.618	18.21±3.14	0.404	17.14±0.27	0.088	13.21±2.66
	기타	7(4.5)	19.43±2.56	15.71±2.28	14.42±0.87	11.85±3.28		0.349	
	상	7(4.5)	20.71±3.59	17.14±2.19	13.42±0.59	10.00±3.00			
경제수준	중	135(86.5)	18.88±2.39	1.939	16.98±2.77	2.281	16.23±15.21	0.035	11.74±2.92
	하	14(9.0)	18.71±2.01	17.42±3.67	16.07±0.75	12.85±2.14		1.028	
	유	147(94.2)	18.96±2.46	0.272	17.05±2.85	16.21±14.62	1.243	11.76±2.90	
아르바이트	유	9(5.8)	18.77±1.98	0.475	16.66±2.34	14.22±0.15	11.77±2.99		-0.015
	무	147(94.2)	18.96±2.46	18.29±2.55	15.46±0.32	11.35±2.61			
봉사시간	0~59	62(39.7)	19.19±2.47	18.29±2.55	15.46±0.32	11.35±2.61			
	60~99	46(29.4)	18.84±1.89	1.635	17.50±2.41	1.532	15.10±0.26	2.263	12.39±2.57
	>100	48(30.9)	18.75±2.84	17.25±3.38	14.02±0.28	12.68±2.53		5.982**	
간접 빈곤경험	유	127(81.4)	18.98±2.53	0.363	17.15±2.84	1.119	14.85±0.32	-1.114**	11.77±3.00
	무	29(18.6)	18.82±1.98	16.51±2.72	21.51±32.16	11.72±2.43		0.091	
직접 빈곤경험	유	56(35.9)	18.91±2.72	-0.161	17.35±2.75	1.088	15.83±0.29	-0.222	11.85±3.21
	무	100(64.1)	18.98±2.27	16.85±2.86	16.24±17.65	11.71±2.72		0.290	
합계	156(100)								

빈곤과 일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

	다양한 활동	심리적 헌신물입	사회적 표출성	지위획득의 도구성
빈곤문제	.116	.072	-.108	.181*
빈곤상황	-.005	.154	-.136	.226**
사회적 노력	.006	.088	-.018	.051

일에 대한 태도가 빈곤태도에 미치는 영향

1) 일에 대한 태도가 빈곤문제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지위획득의 도구성	.266	.116	.181	2.290*
R ² =.033 Adj R ² =.027 F=5.246*				

2) 일에 대한 태도가 빈곤상황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지위획득의 도구성	.483	.156	.241	3.093**
사회적 표출	-.065	.032	-.159	-2.037*
R ² =.085 Adj R ² =.061, F=3.51**				

빈곤학습경험에 따른 빈곤에 대한 태도

구분	N(%)	빈곤문제		빈곤상황		사회적 노력	
		M±SD	t/F	M±SD	t/F	M±SD	t/F
강의	유	46(29.4)	29.91±4.41	-0.078	40.97±5.27	0.081	21.84±2.65
	무	110(70.6)	29.97±4.20	40.90±6.02	21.49±2.70		0.761
토론	유	35(22.4)	29.71±4.75	-0.350	41.05±5.88	0.154	21.42±2.58
	무	121(77.6)	30.02±4.11	40.88±5.79	21.64±2.72		-0.431
합계	156(100)						

빈곤학습경험에 따른 일에 대한 태도

구분	N(%)	다양한 활동		심리적 헌신물입		사회적 표출성		지위획득의 도구성	
		M±SD	t/F	M±SD	t/F	M±SD	t/F	M±SD	t/F
강의	유	46(29.4)	19.08±2.48	0.432	17.30±2.93	0.760	15.15±0.23	-0.800	11.87±2.67
	무	110(70.6)	18.90±2.42	16.91±2.78	16.49±16.81		11.71±2.99		0.311
토론	유	35(22.4)	18.68±2.79	-0.671	17.11±2.86	0.193	14.91±0.19	-0.979	12.11±2.87
	무	121(77.6)	19.03±2.33	17.00±2.82	16.43±16.05		11.66±2.90		0.819
합계	156(100)								

결론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빈곤과 일에 대한 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간호학전공자가 사회복지학전공자보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경우 빈곤에 대한 태도 점수가 모든 영역에서 낮음. 간접적으로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일을 통한 도덕적, 심리적 만족 점수가 유의하게 높음(p=.001) 봉사시간이 많을수록 일을 사회적 지위획득의 수단으로 여기는 점수가 유의하게 높음(p=.003)
- 빈곤학습경험에 따른 빈곤과 일에 대한 태도
빈곤에 대한 강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빈곤문제에 대한 점수가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낮음. 빈곤에 대한 토론의 경험이 있는 학생은 빈곤문제와 사회적 노력에 대한 점수가 낮음. 빈곤에 대한 강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다양한 활동, 심리적 헌신물입, 지위획득의 도구성 점수가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높음. 빈곤에 대한 토론의 경험이 있는 학생은 심리적 헌신물입과 지위획득의 도구성 점수가 높음.
- 빈곤에 대한 태도와 일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
빈곤 문제와 지위획득의 도구성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짐 (상관계수=.181, p=.023), 빈곤 상황과 지위획득의 도구성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짐 (상관계수=.226, p=.002)
- 일에 대한 태도가 빈곤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일을 사회적 지위획득의 도구로 적용할수록 빈곤 문제 점수가 높아짐(p=.023)
- 일에 대한 태도가 빈곤 상황에 미치는 영향
일을 사회적 지위획득의 도구로 적용할수록 빈곤 상황 점수가 높아짐(p=.002) 일로 사회적 만족을 얻을수록 빈곤 상황 점수가 낮아짐(p=.043)

제언

- 첫째, 지역분포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표집을 통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
- 둘째, 빈곤에 대한 태도, 일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검증과 보완이 요구됨
- 셋째, 보건복지계열 대학생의 빈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참여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